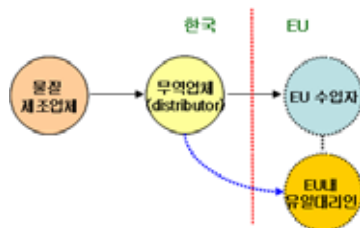


EU	()	EU
----	-----	----

1. 유일대리인 관련

<질문1 - FECC(유럽 화학물질 유통업체 협회)>

REACH 법 8조(비 EU 제조자의 유일대리인)에 따르면, 유일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EU 역외 물질, 혼합물 제조자/완제품 생산자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EU 역외 판매자(distributor)도 유일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 등록 지침서에 명확히 명시해 주길 바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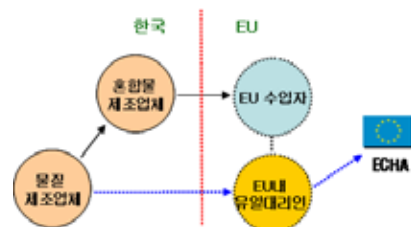


<답변1>

REACH 법 8조(비 EU 제조자의 유일대리인)에 따라 EU 역외 판매자(distributor)는 유일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음(등록지침서 2008년 2월판에 명시).

<질문2 - Cefic(유럽화학산업협회)>

EU 역외 혼합물 조제자에게 원료물질을 공급하는 'EU 역외 물질 제조자'도 OR을 선임하여 물질등록을 할 수 있음을 등록 지침서에 명확히 명시해 주길 바랍.



<답변2>

ECHA(유럽화학물질청)는 등록 지침서에 EU 역외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공급자-고객)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왜냐하면 EU 역외 혼합물 조제자는 혼합물 내 원료물질에 대해 다양한 공급처를 갖고 있어, EU 수입자가

혼합물 내 모든 물질에 대해 OR과 적절히 협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임. 이에 ECHA는 EU 역외 조제자(즉, 혼합물 제조자)가 OR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등록 지침서 2008년 2월판에 명시).

<질문3 - Cefic(유럽화학산업협회)>

OR(유일대리인) 변경시, 새로운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기존 RIP 3.1 버전에서는 OR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OR과 합의하여 등록서류를 업데이트(등록자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답변3>

새로운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이전 OR과 새로운 OR 간에 법적 연결고리(legal link)가 없기 때문임. 두 법인은 공통점(동일한 EU 역외 제조자에 의해 선임된 OR인 것을 제외하고는)이 없으므로, 동일한 등록서류를 유지하거나 단순히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함.

<질문4 - UK HSE(영국 산업안전보건청)>

EU 역외 제조자들은 협력(club together)하여 공동으로 선임한 OR을 통해 하나의 등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게 한 반면, EU 제조자들은 SIEF내의 공동등록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는 EU 제조자들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하여 EU 산업계에게 큰 경쟁약점을 주게 됨. 이 부분을 개정할 여지가 있는가? 수수료 및 요금 규정 초안의 제 12조에 대한 최근 개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개정할 여지가 있는 것 같음.



<답변4>

OR(유일대리인)은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입자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OR은 EU 역외 제조자로부터 EU 내로 수입되는 총 톤수를 커버하는 하나의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함. OR은 각각의 수입자보다 결과적으로 많은 정보요건을 가진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그 서류에 대해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임. 이러한 경우 수입자와 같이 동일한 의무가 적용됨.

<질문5 - GRIP(REACH 시행관련 난제 토의)>

지난 REACH-CA 회의에서, 일부 EU 회원국은 등록서류 내에 EU 역외 제조자의 신원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 질의했음. 부속서 6에 명시된 바로는 다수의 EU 역외 제조자의 물질에 대한 하나의 등록서류일 경우, EU 역외 제조자의 신원이 등록서류에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비록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EU 역외 제조자의 신원이 등록서류에 명시되길 바람.

* 부속서 6 : 제10조(등록서류)에 언급된 정보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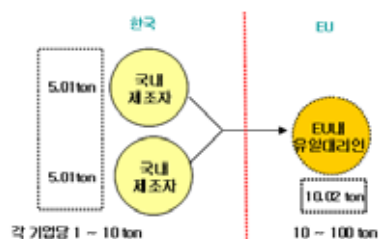
<답변5>

OR(유일대리인)에게는 자신이 대표하는 EU 역외 제조자의 신원을 등록서류에 명시하는 법적 의무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IUCLID 1.7절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강력히 권고됨.

2. 톤수 관련

<질문1 - Cefic(유럽화학산업협회)>

OR이 EU 역외의 두 기업을 대표하고, 이들 기업은 각각 5.01톤을 수출한다. 이는 등록톤수범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10톤 범위에 속함. 하지만 톤수합산으로 인해 OR이 등록할 톤수는 10-100톤 범위임. 이러한 톤수 합산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비용분담, 비밀유지 등)이 발생되며, 특히 EU 역외 기업은 이를 원치 않고 있음.



<답변1>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Commission Legal service와 협의가 되었음. OR이 다수의 EU 역외 제조자를 대표한다 하더라도 수입자에 의해 수입되는 물질 톤수 모두를 커버하는 하나의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 이 의무는 EU 수입자의 의무와 동일함.

<질문2 - UK, HSE(영국 산업안전보건청)>

Commission Legal Service는 제6조와 제7조의 등록이 서로 독립적임을 권고하고 있음. 이 해석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해주기 바람.

* 제6조 : 물질자체 혹은 혼합물 내에 있는 물질의 등록을 위한 일반적인 의무

제7조 : 완제품내 물질의 등록과 신고

<답변2>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연간 1톤 이상 기준치에 도달하였을 때, 등록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7(6)조는 제6조 및 제7조 간의 연결고리임. 1톤 기준치가 제6조 및 제7조에 모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조항 하에서 등록 물질량을 합산해야 한다는 조항은 REACH 규정 어디에도 없음.(등록지침서 2008년 2월판에 명시 - p.27 참조)

* 제7조 6항 : 그 용도에 대해서 이미 등록된 물질은 등록과 신고가 적용되지 않음.